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2

<http://sri.kostat.go.kr>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가구·가족 영역의 주요 동향

진미정 (서울대학교)

- 1세대 가구 및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다인가구 비율이 감소하면서 가구 규모가 계속 작아지고 있어 2050년에는 1.9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 전체 가구 중 아동이 1명 이상 있는 아동가구는 감소하는 반면, 노인 독거나 노인 부부가구 등 노인만 있는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 2021년 혼인건수는 전년 대비 9.8% 감소하였고,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전년보다 각각 0.1세, 0.3세 높아져 만혼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 2021년 이혼건수는 전년 대비 4.5% 감소하였고, 남녀 모두 평균 이혼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다.
- 결혼에 대한 유연한 태도가 확산되고 있으며,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남녀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
-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과 부모-자녀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 영유아 돌봄을 보면,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2012년에 비해 2021년에 더 높아졌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더 낮아졌다. 가정양육수당제도가 확대되면서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노부모를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가족·정부·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의식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가족과 사회의 함께 돌봄이 요구되고 있다.

가족과 가구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곳이다. 가족과 가구

의 변화는 공적 영역과 대비되는 사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변화를 나타낸다. 가족과 가구 영역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일상생활 변화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변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2022년은 지난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감염증이 약화하면서 일상생활의 회복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경제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여전히 어려운 사회적 상황이 계속되었다. 사회적 상황은 개인과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과 가구 동향을 이해하는데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가족과 가구 동향을 가족구조, 가족형성, 가족관계, 가족돌봄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장기적 추세와 단기적 변화를 찾아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장래가구추계」, 「인구동태통계」, 「사회조사」,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특히 2021년부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아동가구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가족구조

가족구조의 변화 동향은 가구 소규모화, 가구 구성의 다양화, 1인가구 증가세, 아동가구 감소세, 노인가구 증가세로 요약된다.



가구 규모의 축소와 다양화

가구 규모가 계속 작아지고 있다. 평균 가구원 수는 1990년 3.7명에서 2020년 2.3명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은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50년」에서 2050년에는 평균 가구원수가 1.9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가구 규모의 축소는 우선 출산자녀 수 감소가 영향을 미쳤고,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이 줄어들고 1세대 가구나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2세대 핵가족 가구의 비율이 2020년에는 44.0%로 낮아졌으며, 2026년에는 처음으로 4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부부가구 등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 비율은 1990년 10.7%에서 2020년 18.6%로 증가하였고, 1인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20년 31.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2020년에 10가구 중 약 2가구는 부부만 있는 가구, 3가구는 1인가구, 4가구는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1가구는 그 외의 구성을 가진 가구로 구성의 다양성이 증가하였다(표 II-1). 이러한 추세는 205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인가구의 증가 가속화

1인가구는 생활과 관계 단위가 분리되는 삶의 양식이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현상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 단위를 영위하는 삶의 양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1>을 보면, 1인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20년

31.7%로 30년 사이에 약 3.5배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 1인가구의 연령 분포를 보면, 20대 19.1%, 30대 16.8%, 40대 13.6%, 50대 15.6%, 60대 15.6%, 70대 이상 18.1%로 20대와 70대가 서로 비슷하게 많다. 성별을 구분하여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30대 1인가구가 21.6%, 여성은 70세 이상 1인가구가 27.5%로 가장 많다.

〈표 II-1〉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와 세대구성, 1990~2050

연도	평균 가구원수 (명)	세대별 구성비율(%)				비친족 가구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1990	3.7	9.0	10.7	66.3	12.5	1.5
1995	3.3	12.7	12.7	63.3	10.0	1.4
2000	3.1	15.5	14.2	60.8	8.4	1.1
2005	2.9	20.0	16.2	55.4	7.0	1.4
2010	2.7	23.9	17.5	51.3	6.2	1.2
2015	2.5	27.2	17.4	48.8	5.4	1.1
2020	2.3	31.7	18.6	44.0	3.7	2.0
2030	2.1	35.6	21.7	37.6	2.4	2.6
2040	2.0	37.9	23.9	33.5	1.8	2.9
2050	1.9	39.6	25.0	30.9	1.4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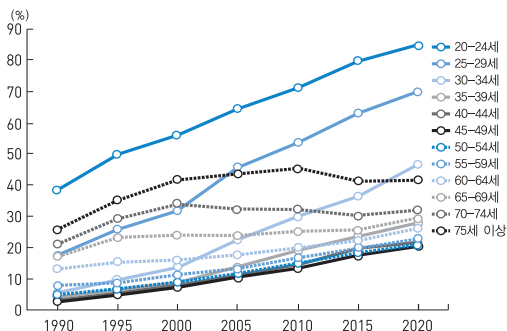
- 주: 1) 1세대 가구는 부부, 부+기타 친인척 등 동일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2) 2세대 가구는 부부+자녀, 부+자녀, 모+자녀 등 2개의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3) 3세대 이상 가구는 부부+미혼자녀+양친 등 3개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4) 2020년까지는 집계 자료이며, 이후 2050년까지는 추계치임.
 5) 「인구주택총조사」의 1990~2010년 자료는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 이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2020; 「장래가구추계: 2020~2050」, 2022.

[그림 II-1]을 보면 가구주 연령대별로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대 74.8%, 30대 35.7%, 40대 21.2%, 50대 21.6%, 60대

27.4%, 70대 이상 37.9%로 나타났다. 20대 중 독립된 가구를 형성한 가구주는 대다수가 혼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 연령대별 1인가구 비율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낮아지다가 50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II-1] 가구주 연령대별 1인가구의 비율, 1990~2020



주: 1) 1인가구 비율은 해당 연령집단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2) 「인구주택총조사」의 1990~2010년 자료는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 이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아동인구 및 아동가구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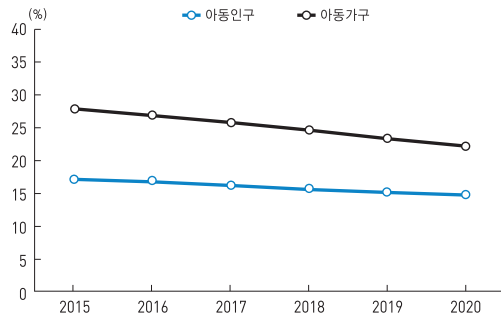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만 18세 미만 아동인구가 전체 인구의 17.2%이며, 아동이 1명 이상 있는 가구(아동가구)는 전체 가구의 27.9%였다. 2020년에는 아동인구 비율이 14.7%, 아동가구 비율이 22.2%로 감소하였다. 출생율이 감소하면서 아동들을 양육하는 가구 수와 비율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그림 II-2).

그러나 부모와의 동거 여부로 구분한 아동가구의 구성 비율은 지난 6년 동안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전체 아동 인구 중 부모 모두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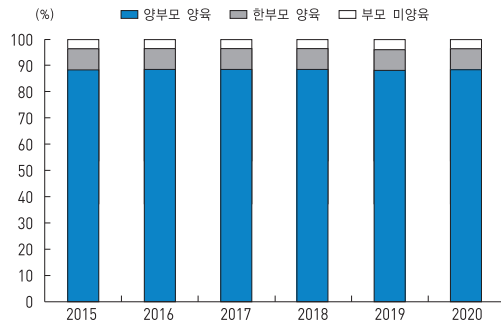
같이 사는 아동 비율은 2015년 88.4%, 2016~2018년 88.6%, 2020년 88.4%로 거의 유사하고, 한부모 아동은 2015년 8.1%, 2016년 7.8%, 2020년 8.1%, 부모 모두와 같이 살지 않는 아동은 2015년 3.5%, 2020년 3.6%로 거의 변화가 없다.

[그림 II-2] 아동 인구 및 가구 비율과 부모의 양육 여부별 아동 수, 2015~2020

1) 아동 인구 및 가구 비율



2) 부모의 양육 여부별 아동 수



출처: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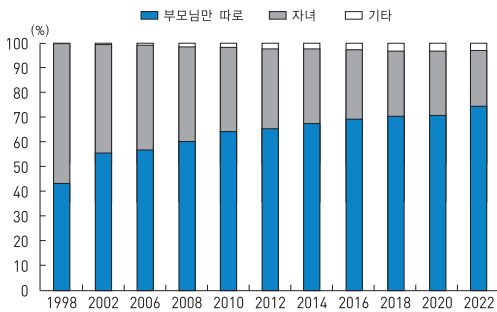
노인가구 증가세 유지

노부부만 따로 사는 노인 부부가구의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



면, 노부모만 따로 거주하는 비율이 1998년 43.1%에서 2022년 74.5%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은 1998년에 56.5%를 차지하였으나 2022년에는 26.2%로 감소하였다. 자녀 외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비율은 1998년 0.4%에서 2022년 2.9%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그림 II-3).

[그림 II-3] 노부모의 동거가족, 1998-2022



주: 1)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신 30세 이상 가구주와 배우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의 부모님은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3) 2020년에 설문문항의 응답범주가 수정되었음. '자녀' 통계치는 1998-2018년까지는 '장남', '장남 외 아들', '딸' 범주를 합한 응답률이며, 2020년부터는 '형제자매(부모의 자녀)' 범주의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족 형성

전통적으로 가족이 형성되는 경로는 혼인, 출산, 입양이지만, 이혼과 미혼 출산도 가족을 형성하는 새로운 경로가 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이나 미혼부/모 가족은 절대적인 수는 많지 않지만,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혼인 감소

2021년 혼인건수는 19만 2,507건으로 전년 대비 2만 995건(9.8%)이 감소하였다(표 II-2). 2010년 혼인건수가 32만 6,104건이었으므로 지난 11년 사이 혼인건수는 13만 3,597건이 감소하였다. 2011년 이후 혼인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처음으로 혼인건수가 20만 건 이하로 떨어졌다.

[표 II-2] 혼인건수 및 혼인율, 1990-2021

연도	혼인건수 (1,000건)	조혼인율 (건)	일반혼인율(건)	
			남성	여성
1990	399.3	9.3	25.2	24.9
1995	398.5	8.7	22.9	22.5
2000	332.1	7.0	17.8	17.5
2005	314.3	6.5	16.1	15.8
2010	326.1	6.5	15.7	15.5
2015	302.8	5.9	13.9	13.7
2020	213.5	4.2	9.6	9.4
2021	192.5	3.8	8.6	8.5

주: 1)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임.
 2) 일반혼인율은 15세 이상 남자 또는 여자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조혼인율 역시 지난 11년 사이 6.5건(2010년)에서 3.8건(2021년)으로 감소하여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건 이하로 낮아졌다. 15세 이상 인구의 일반혼인율은 지난 11년 사이에 남성의 경우 2010년 15.7건에서 2021년 8.6건으로 감소하였다. 여성의 일반혼인율 역시 2010년 15.5건에서 2021년 8.5건으로 감소하였다.

혼인건수 및 혼인율이 계속 감소하는 것은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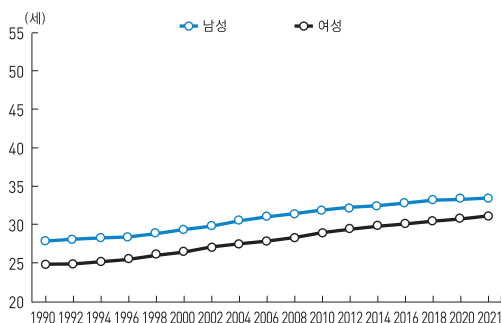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약해지는 것과도 관련된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되면서 혼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혼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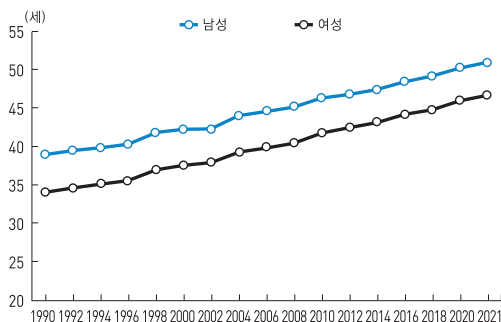
2021년 기준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3.4세로 전년보다 0.1세 증가하였고, 여성은 31.1세로 전년보다 0.3세 높아졌다(그림 II-4). 여성을 기준으로 볼 때, 연령별 혼인건수는 25~29세가 전

[그림 II-4] 성별 평균 초혼연령과 재혼연령, 1990~2021

1) 평균 초혼연령



2) 평균 재혼연령



주: 1) 성 및 연령별 이혼율은 해당 연령 남자 또는 여자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체 혼인건수의 33.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40세 이후 혼인건수도 전체의 16.6%를 차지할 정도로 중년기 이후 결혼이 적지 않으며,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남녀 모두 재혼인 사례는 2021년 전체 혼인건수의 12.4%로 나타나며, 이는 2009년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초혼의 감소 추세보다는 급격하지 않아 중년기 이후의 재혼이 일정 비율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남성의 평균 재혼 연령은 50.7세, 여성은 46.5세로 전년에 비해 남성은 0.6세, 여성은 0.8세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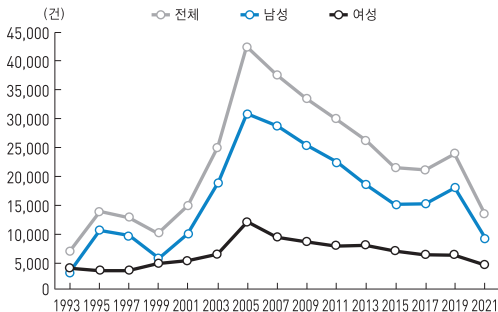
외국인과의 혼인 감소

[그림 II-5]의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를 보면, 외국인과의 결혼은 2021년 기준 총 1만 3,102건으로 2020년보다 2,239건 줄어들어 전년 대비 14.6% 감소하였다.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2005년에 4만 2,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 감소하다가 2018년 2만 2,698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귀화자인 다문화 부모를 가진 아동은 2015년 전체 아동의 2.7%에서 2020년 3.9%로 증가하였다. 아동 수나 아동 가구 비율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동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II-5]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1993-2021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이혼 감소

이혼은 하나의 가정이 두 개의 가정으로 나뉘는 현상이다. 혼인건수가 일관되게 감소하는 것에 비해 2003년을 기준으로 이혼건수는 증감의 변동이 있다. <표 II-3>을 보면, 2003년 이혼건수가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다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시기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2021년 이혼건수는 10만 1,673건으로 전년도 10만 6,500건보다 4.5% 감소하였다. 혼인율과 마찬가지로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혼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유배우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유배우 이혼율은 4.2건이며,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일반이혼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4.5건이다.

이혼연령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21년 기준 남성의 평균 이혼연령은 50.1세, 여성의 평균 이혼연령은 46.8세로 2000년에 비해서 평균 이혼연령이 남성 10.0세, 여성 10.2세 높아졌다. 이혼

연령의 상승은 만혼으로 인해 결혼연령 자체가 높아진 탓도 있지만 결혼생활을 오래 유지한 중장년층의 이혼이 증가한 데에도 기인한다.

<표 II-3> 이혼건수, 이혼율 및 평균이혼연령, 1990-2021

연도	이혼건수 (1,000건)	조 이혼율 (건)	일반 이혼율(건)		평균 이혼연령(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90	45.7	1.1	2.9	2.8	36.8	32.7
1995	68.3	1.5	3.9	3.9	38.3	34.5
2000	119.5	2.5	6.4	6.3	40.1	36.5
2005	128.0	2.6	6.6	6.5	42.1	38.6
2010	116.9	2.3	5.6	5.6	45.0	41.1
2015	109.2	2.1	5.0	5.0	46.9	43.3
2020	106.5	2.1	4.8	4.7	49.4	46.0
2021	101.7	2.0	4.5	4.5	50.1	46.8

주: 1)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2) 일반이혼율은 15세 이상 남자 또는 여자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그림 II-6]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연령대별로 이혼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이를 보여준다. 연령별 이혼율은 해당 연령에서 남성 또는 여성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낸다. 2001년에는 30대와 40대 남성의 이혼율은 각각 12.4건과 12.3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5.1건과 7.2건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50대와 60대 이상 남성의 이혼율은 2001년 6.1건, 1.8건에서 2021년 6.7건, 3.8건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이혼율은 2001년 30대와 40대에서 각각 13.9건과 9.8건이었다가 2021년에 7.1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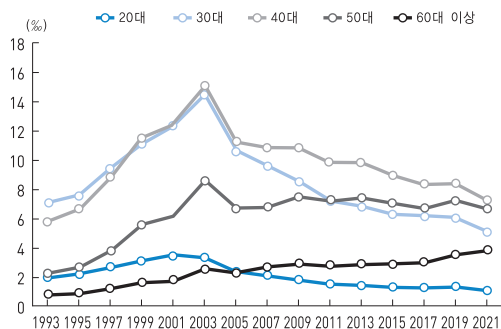


7.8건으로 이혼율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50대와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2001년 3.2건, 0.5건에서 2021년 5.9건, 2.1건으로 이혼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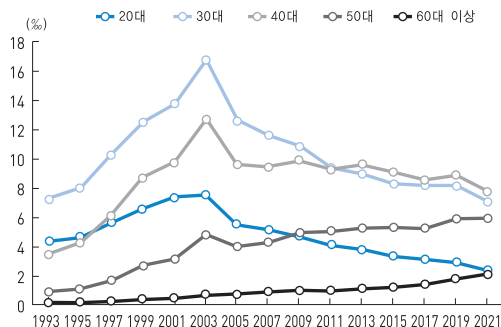
남성과 여성 모두 중·노년 세대의 이혼이 증가하는 현상은 중·노년기가 길어지고 중·노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또한, 미성년 자녀 양육이라는 부모로서의 과업을 마치는 시기가 50대 이상이라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II-6] 성별 및 연령별 이혼율, 1993-2021

1) 남성



2) 여성



주: 1) 성별 및 연령별 이혼율은 해당 연령 남자 또는 여자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가족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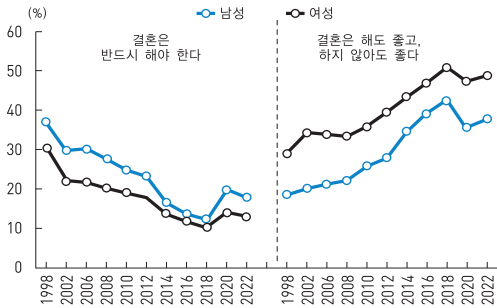
결혼 및 동거 가치관의 변화

가족 가치관의 변화는 한국 사회 규범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지난 20년 동안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는 ‘비혼’, ‘졸혼’, ‘공동체 가족’과 같은 신조어에 반영되어 있다. 결혼에 대한 태도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1998년에는 남성의 18.4%와 여성의 28.9%가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하였으나 2022년에는 이 응답 비율이 남녀 각각 37.7%와 48.7%로 증가하여 결혼에 대한 유연한 태도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현재 남성의 55.8%, 여성의 44.3%가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에 대해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그림 II-7).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같이 사는 동거에 대한 태도도 계속 허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남성의 68.0%와 여성의 62.4%가 ‘약간 동의’ 혹은 ‘전적으로 동의’라고 응답하였다(그림 II-8).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의 필수성 및 동거에 대한 동의 정도가 모두 높아 이성 간 친밀한 관계성에 대한 선호와 기대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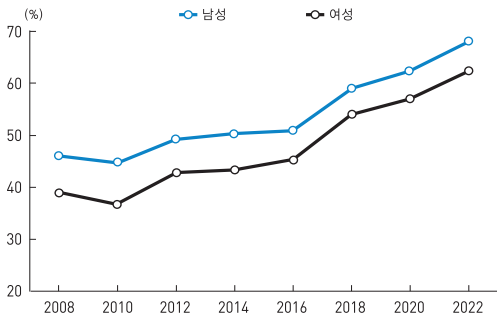


[그림 II-7] 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1998-2022



주: 1) 1998-2010년은 만 15세 이상 인구,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등 6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여기에서는 결혼에 대한 당위적 태도와 선택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의 응답률만을 제시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II-8] 성별 동거에 대한 태도, 200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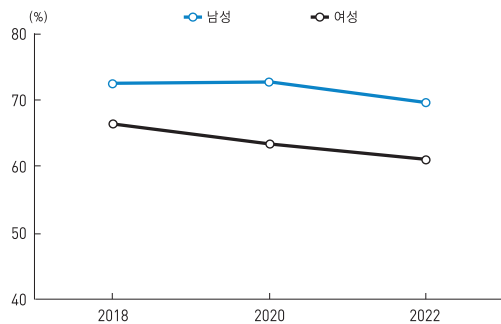
주: 1) 2008-2010년은 만 15세 이상 인구,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డా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전적으로 동의’와 ‘약간 동의’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출산 및 자녀양육 가치관의 변화

이성간 친밀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허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에 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관은 더 부정적인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8년 「사회조사」에 처음으로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이 포함되었는데, 2022년 현재 여기에 동의하는 비율은 남성 69.6%, 여성 61.1%로 과반 이상이 자녀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에 비해 여성의 동의 정도가 낮다. 결혼하면 자녀를 갖는 것을 당연시했던 생각의 이러한 변화는 최근 저출생 현상의 심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II-9).

[그림 II-9] 성별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2018-2022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전적으로 동의’와 ‘약간 동의’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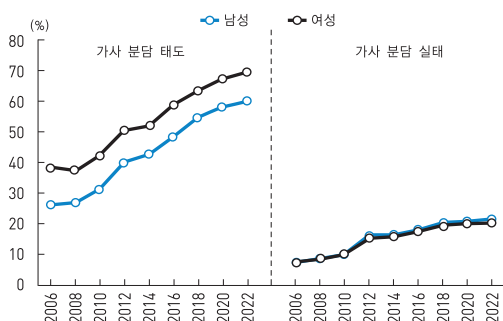
성역할 태도와 가사분담의 변화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중 가장 뚜렷한 것이 바로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분담에 대한 태도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은 2006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22년에

는 남성 60.0%, 여성 69.4%에 이른다(그림 II-10).

가사분담 행동도 점차 공평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2022년 현재 남성 21.3%, 여성 20.5%로, 2006년 남성 7.5%, 여성 7.9%보다 남녀 각각 13.8%p, 12.6%p 증가했다. 그러나 공평함을 지향하는 가치관과 실제 분담 정도에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201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48분, 여성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3시간 10분으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약 4배 더 많다.

[그림 II-10] 성별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태, 2006-2022



주: 1)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는 2006-2010년은 만 15세 이상, 2012-2022년은 만 13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부부간 가사분담에 대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2)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는 19세 이상의 남편과 아내가 응답한 결과로 이들 중 평소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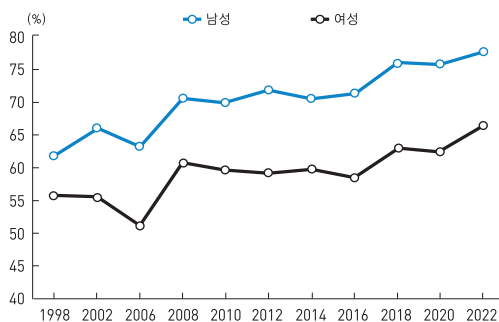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

가족관계 만족도는 배우자와의 관계 및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

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2022년 배우자와의 관계에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에 응답한 남성이 77.7%, 여성이 66.5%이며,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성별 차이는 11.2%p이다(그림 II-11).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연령대별 차이가 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1998년 29세 이하 부부가 72.2%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은 49.1%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20년 이상 계속되어 2022년에도 29세 이하 부부의 배우자 만족 비율이 92.9%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 부부의 배우자 만족 비율이 64.7%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았다.

[그림 II-11] 성별 배우자 관계 만족도, 1998-2022



주: 1) 1998-2010년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부부 관계 만족도는 조사대상자가 부부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또는 '약간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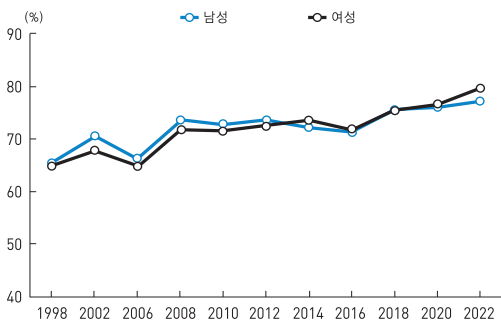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약간의 등락이 있다. 2016년에 만족하는 비율이 낮았고,



그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기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에 응답한 남성이 65.5%, 여성이 64.9%였지만, 2022년에는 남성이 77.2%, 여성이 79.8%로 높아졌다(그림 II-12).

[그림 II-12] 성별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1998-2022



주: 1) 1998-2010년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는 조사대상자가 자녀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또는 '약간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가족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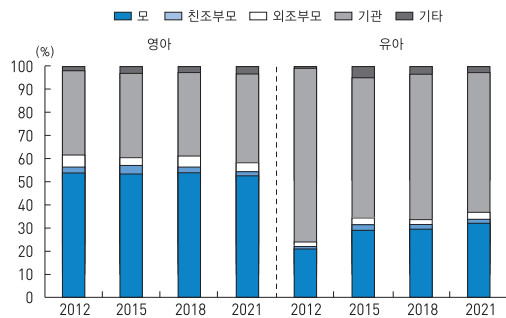
자녀 돌봄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것은 가족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돌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가족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여전히 돌봄에 대한 일차적인 의사결정과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

영유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낮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어머니 41.4%,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51.0%, 조부모 5.0%, 기타 2.6%였다. 이러한 비율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2012년에는 어머니 37.5%,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56.0%, 조부모/친인척 5.5%, 기타 0.9%로,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2021년에 더 높아졌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더 낮아졌다. 2013년 이후 가정양육수당제도가 전면 확대되면서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13] 낮 시간 영유아 주양육자, 2012-2021



주: 1) 영아 및 유아의 대상연령은 보육연령 기준으로 영아는 0-2세, 유아는 3-5세임.
2) 통계치는 낮 시간 영유아 주양육자에 대한 응답률로, 기타는 부, 기타 친인척, 육아전문인력 등임.
출처: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각 연도.

이러한 돌봄 방식은 자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2012년 기준 만 2세 이하의 영아를 낮에 돌보는 사람은 어머니 53.9%, 기관 36.7%, 영아의 조부모 7.7%이었고, 유아는 어머니 20.9%, 기관 75.5%, 조부모 2.9%였다. 2021년 기준 만

2세 이하의 영아를 낮에 돌보는 사람은 어머니 52.6%, 기관 39.0%, 영아의 조부모 5.4%이고, 유아는 어머니 32.1%, 기관 60.9%, 조부모 4.7%였다(그림 II-13). 오히려 유아 가정에서 기관 이용 비율이 더 많이 감소하고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더 많이 증가하여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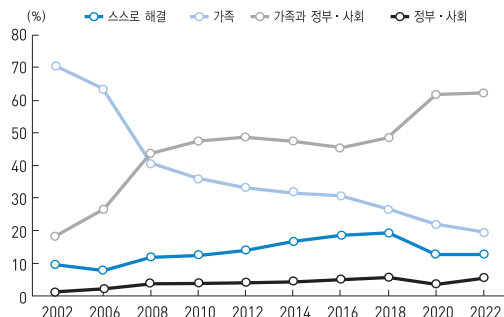
부모 부양

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의 2002년과 2022년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면, 노부모 돌봄이 가족책임이라는 견해는 70.7%에서 19.7%로 크게 감소하였다. 2022년에 부모님 부양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은 10대 23.3%, 20대 20.7%, 30대 18.7%, 40대 15.8%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다가, 50대 18.0%, 60세 이상 22.5%로 다시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가족과 정부·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견해는 2002년 18.2%에서 2022년 62.1%로 증가하였다. 부모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비율은 2002년 9.6%에서 2018년 19.4%까지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 12.9%로 감소하였으며 2022년에 다시 약간 감소하였다(그림 II-14).

부모 부양책임의식의 약화를 반영하듯이 노부모가 스스로 생활비를 책임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부모 세대의 절반 이상인 71.7%가 스스로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다. 스스로 생활비를 책임

지는 사람 비율이 46.3%였던 2002년에 비하면 25.4%p 증가한 것이다.

[그림 II-14]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의견, 2002-2022



주: 1) 2002-2010년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부모님의 노후 생계는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되었음.

3) 통계치는 해당 응답범주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맺음말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변화들은 개인화 시대의 한국 사회의 모습을 비춰준다. 가구 유형이 다양화하고, 아동가구는 감소하며, 1인가구와 노인가구가 증가하는 장기적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혼인율과 이혼율이 감소하여 가족형성이 둔화되고 있다.

공평한 성역할 분담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남녀 모두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은 여성이 주로 하고 있어 남성의 돌봄 참여가 더 필요하다. 유아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3년 전보다 오히려 더 낮



아저서 가정의 돌봄 부담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지원책이 요구된다.

가족관계의 질적 측면을 보았을 때, 2015년에 비해 2022년에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 평균수명이 길어질수록 부부관계가 중요해지는데,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부모와 자녀 관계 역시 만족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았

다. 세대관계가 장기화될수록 부모-자녀 관계가 중요해지는데 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부모 부양책임의식의 변화가 뚜렷하여 노후를 가족이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가족·정부·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의식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장기화된 노년기를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돌봐야 한다는 태도가 정착된 것으로 보이며, 가족과 정부·사회의 함께 돌봄이 요구된다.

